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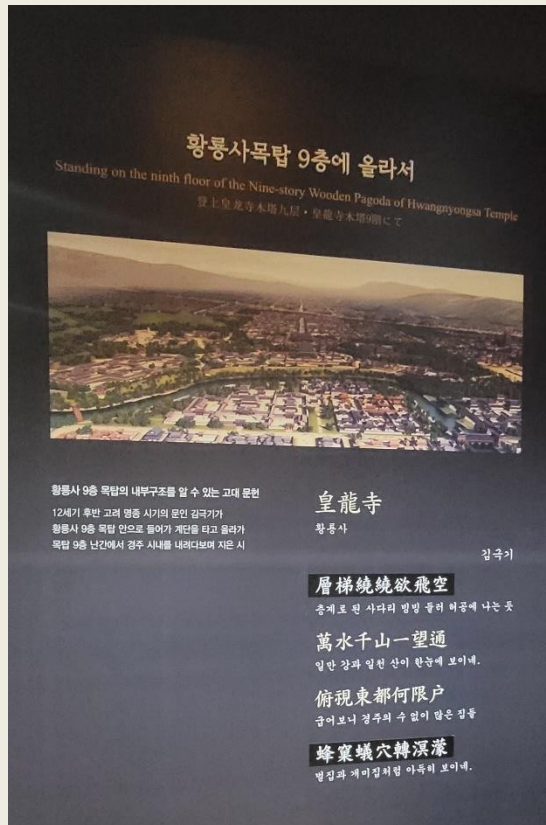
2021년 11월 13~14일 신라건축탐험대 박○○



교과서, 어디까지 가봤니?

황룡사

황룡사는 불타 없어져 터만 남아있었다. 터만 해도 엄청나게 넓고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은 실제 크기의 1/10 크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형도 꽤 컸는데 실제 크기는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어렵다. 그 시대에 기계장비가 없이 저런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했다. 전시장 밖에는 터에서 AR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진짜 건물 느낌은 아니어도 꽤나 비슷했다. 아직 AR체험에서는 2층 밖에 없었는데 다음에는 9층 까지 보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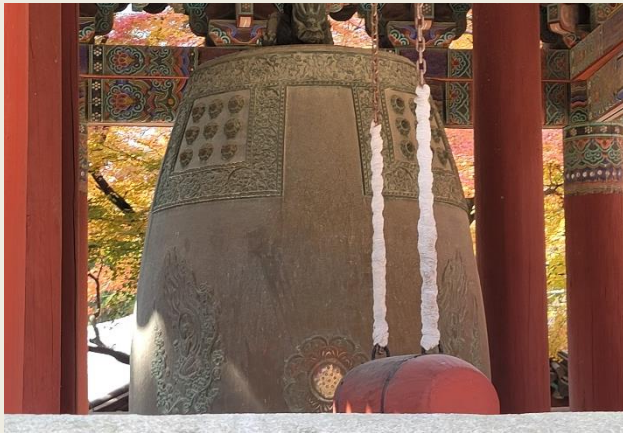
대릉원



대릉원으로 가서 처음 본 것은 천마총 이고 안에서는 여러 보물 등 을 봤다. 경주에 와서 보니 차타고 지나갈 때 마다 사방에 산처럼 큰 무덤이 여기저기 있어서 신기했다.

불국사

불국사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로 보인 것은 청운교, 백운교이다. 올라가보니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과 다보탑이 있고 비로 전, 관음전, 극락전, 무설전, 대웅전도 순서대로 모두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에밀레종으로 유명한 '성덕 대왕 신종' 모형이 있었다. 진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지붕 아래 구석에 나무로 황금멧돼지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양동마을



양동마을은 다 보진 못하고 무첨당만 보고 왔다. 언덕 꼭대기라서 다리는 많이 아팠다. 양동마을은 남아있는 가장 큰 규모의 양반 집성촌이다. 201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언덕길이라 힘들게 산책하기 좋았다.

숙소(석등 있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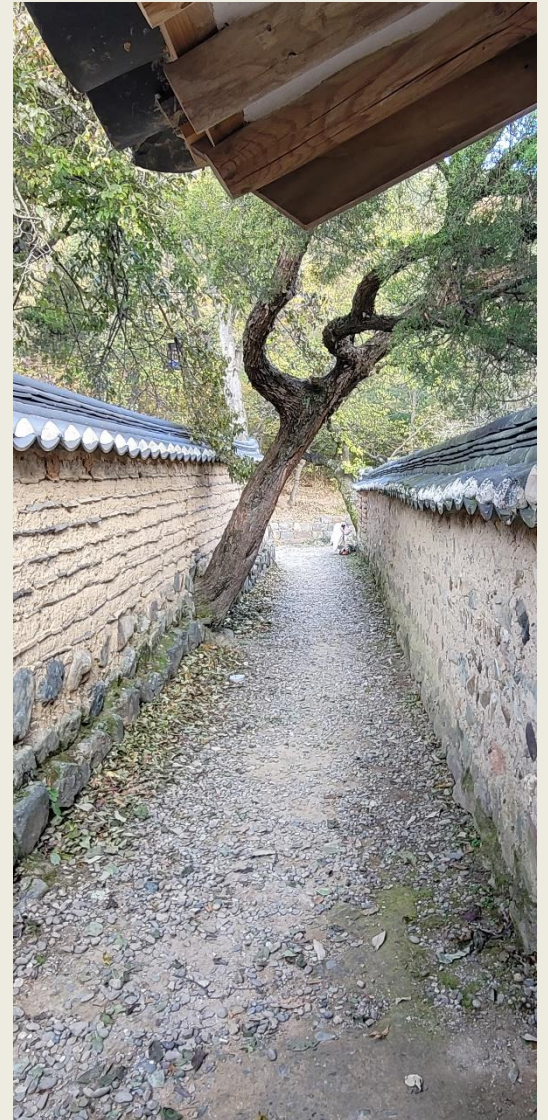


경주 교촌 마을에 위치한 이번 숙소는 마당에 석등이 있어서 집 이름이 '석등 있는 집' 이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처음 자봤다. 문을 열면 방이 나오고 또 열면 또 방이 나오는 구조가 신기했다. 석등 있는 집은 방 이랑 문이 많았다. 밤에 마루에서 보이는 월정교 야경이 멋있었다.



독락당

숙소로 쓰긴 했지만 숙소보다 고택이랑 문화유산 느낌이 더 나는 집이었다. 계곡에서 보이는 정자(계정)가 멋있었고 계곡 물이 많아질 여름에도 꼭 한번 더 와보고싶다.





답사 후 소감

- 경주의 건축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역사 공부가 좀더 되었던 것 같다. 황룡사는 생각보다 훨씬 컸었고 불국사는 책에서 본 것보다 신기한게 많이 있었다. 다음에 갈 때는 석굴암 같은 이번에 못 가본 곳도 가보고 싶다.
- 좋은 기회를 주신 역사문화환경연구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